

새로운 조경수

이 원 열 / 임업연구원 환경생태연구실장(임업연구원)

學名 : *Malus baccata* Borkh.

英名 : *Siberian Crab apple.*

漢名 : 西伯利亞棠梨.

日名 : シベリヤ(エゾノ)コリン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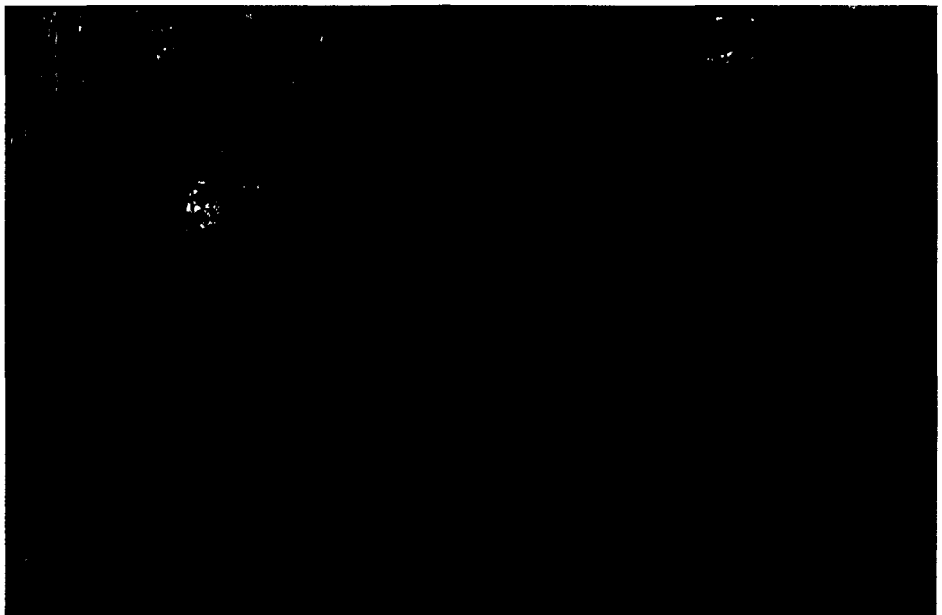
야광나무는 장미과(Rosaceae)의 능금속(*Malus*)에 속하며 나무높이 6~12m로 자라는 낙엽소교목 내지 교목으로 일명 동배나무라고도 한다. 원산지는 시베리아 동부지방이고 우수리강, 사할린, 중국의 동·북부, 일본의 북해도와 우리나라의 온대중·북부에 주로 분포한다.

능금속 중에서도 내한 및 내건성이 가장 강하며, 주로 양지쪽을 좋아하지만 다소 그늘진 곳과 습한 계곡부에서도 잘 자라며, 토질은 양토, 사질양토, 점질양토 어느 곳에서도 잘 자라지만 특히 유기

질이 풍부한 곳에서는 꽃이 풍부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다.

생태 및 분류적 특징을 보면 외관상 아그배나무와 비슷하지만 잎의 가장자리가 깊게 갈라진 결각이 없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나무껍질은 회갈색으로서 불규칙하게 갈라지며 가지는 자갈색 또는 홍갈록색으로서 털이 없다. 잎은 서로 어긋나며, 모양은 타원형 또는 난형으로 상부로 갈수록 점차꼭이 좁고 뽕쪽해지며 하부는 썸기형으로 길이 3~8cm이다. 가장자리 모양은 가는 치아형이며 표면엔 윤택이 있고, 잎자루는 길며 털이 없다. 꽃은 5~6월에 백색 또는 담홍색으로 짧은 줄기 끝에 모여 피며, 열매는 둥글며 지름 1cm 정도로서 9~10월에 붉게 또는 누렇게 익는다. 변종은 잎

자생지 생육상황



자루와 앞뒷면에 털이 있는 털야광나무(전국분포)와 형질이 다소 다른 품종으로 잎 뒷면에 털이 없는 민야광나무, 관목형인 개야광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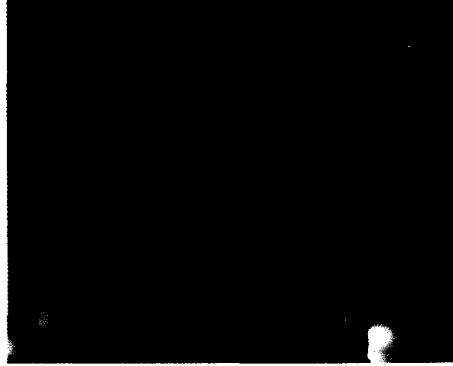
식재 및 이식은 싹이 틀 무렵인 3월하순경이나 11~12월이 적합하며 중성토양이 좋다. 뿌리에 흙이 많을 경우에는 지상부를 자르지 않아도 되지만 뿌리가 많지 않고 흙이 적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지상부의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 내는 것이 활착에 도움을 준다. 식재 구덩이에는 밑거름으로 퇴비나 두엄과 적량의 복합비료를 흙과 혼합하여 넣고 충분히 관수하는 것이 좋다.

번식은 가을에 익은 열매를 며칠간 그릇에 담아두어 과육이 물러진 것을 손으로 비벼 씻어 낸 다음 얻은 종자를 햇볕에 말려 모래와 잘 섞어 묻어 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거나 직파하며 높이가 60cm 정도로 자랐을 때 옮겨 심는다. 실생묘는 아그배나무류와 함께 사과나무의 대목용으로 사용되고, 최근에는 근연종(近緣種)과의 중간교잡에 의해 꽃나무로 많이 개량 육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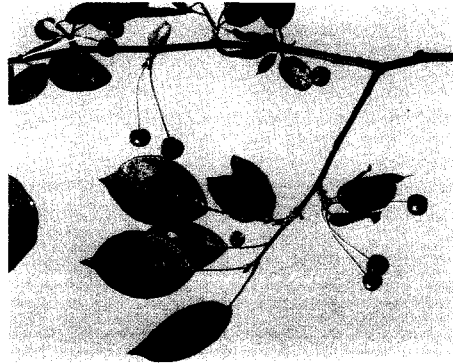
전정할 때에는 전체 수형을 다듬고 묵은 가지를 갱신해 주는 정도로 하며, 어린나무에 있어서는 원 줄기에 몇개의 곁가지를 균형있게 배치하는 것이 좋다.

병해는 배나무아과의 다른 수종에 비해 적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다이센이나 보르드액을 살포해 주면 좋다. 해충으로는 방패벌레와 텐트나방 및 사과짚시나방 등이 주로 피해를 주는데 방제약제로 전자는 침투성살균제나 니코틴제, 후자는 세빈수화제나 디프수용제가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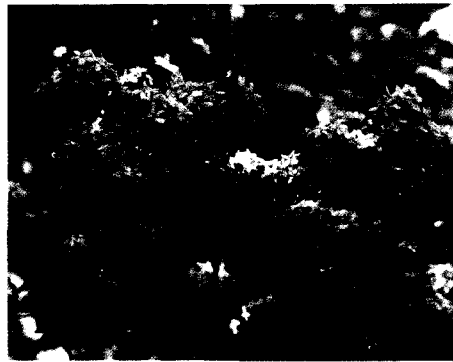
내풍, 내화, 내연 및 내병충성이 강하여 정원수는 물론 공원수와 꽃나무 가로수로도 훌륭하지만 잔가지 처리, 대묘이식문제 등 아직 조정적 가치 개발이 미흡해 널리 이용되지는 않지만 당장은 우리나라의 자생수종으로서 야생의 맛을 느낄 수 있어 도시주변 자연공원내의 산간조경에 이용해 볼 가치가 있으며, 동양적 정취를 풍기는 꽃나무로 이용할 만 하다. ♣



수피



잎



꽃



열매